

## 논평 : 濟州巫俗의 몇가지 特徵과 分析心理學的 試考

이 은 봉\*

육지 신화와 제주의 무속 차이점으로 드러난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다.

첫째는 육지에는 특히 유교의 합리적인 문화가 일방적으로 意識世界, 精神世界에 일방적으로 침투되었으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無意識에 억압을 가져 왔고 대상·보상하는 기능으로 여성우위에 대두 됐다는데 비해 제주도에서는 동등한 관계로 보아 보다 古態的인 것이라 전제하는 것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것은 사회 과학적인 조사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층 심리학의 연구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서는 역사적으로 일시적인 긴장과 대립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육지처럼 양분되지 않으면서 巫의 자체는 연회적 성격, 심방의 사제적 기능이 강화되는 형태로 변화되는 것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어째서 연회적 성격을 띄며 사제적 성격이 강화되었는지에 대한 논리가 없는데 부연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두번째로 巫病에 관한 것으로서 문화 종교적인 차원으로 해석한 Jung의 해석이 매력적이어서 좋아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하면서 사례로 들은 것이 초공 본풀이인데 삼형제·세 영웅의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버림받음, 지금까지 집단사회와의 동일시를 지양하면서 심령회복을 뜻하는 것이다. 보통 세속가치의 대변은 삼천 선비의 의식을 지나친 일변성 강조를 한 것 같고 이 두가지가 대립되었을 때에 삼형제의 시련이 극복되고 과거에 비해 비할 바 없는 자기 통일, 자기 원형에 가깝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지적되고 제주 신화가 여기에서도 육지 신화보다 古態的인 것이라 했는데 상당

\* 덕성여대

히 공감할 하는 바이다.

세번째 차사 본풀이를 예로들어 저승에 봉사하는 者, 이승에서 용감하게 열라대왕과 대항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저승에 봉사하는 者로서 결말을 맺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자기 원형에 좀 더 가깝게 가는 無意識에 가까이 가는 모습을 신화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대극의 갈등, 화해의 원형을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신화의 연구로 좋은 vision을 제시한 것이다. 삼승할망 본풀이에서와 육지 무가와 비교 연구하면 육지의 남성인 천연두신이 일방적으로 찬양되는데 비해 제주에서는 남신의 마마신, 여신의 삼승할망이 대등한 위치에 있다. 이것도 제주의 巫가 古態的인 것이다.

네번째 동물의 빙의에 대해서인데 육지부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다. 동물이라는 것이 아직 인간화 되지 않은 인간 심리의 Libido적인 것이며 인간의 전단계적인 단계로서의 본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동물이 나타난다고 할 때 육지에서는 잘 발견된 것이 아니다. 제주巫歌에서 잔존되고 발견된다고 사실로 확인된다면 역시 제주 巫歌가 古態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